

“군산시 공공 배달 앱 확대해달라” 국민 청원 눈길

코로나19 이용 '민간 배달 앱' 수수료 인상에 반발 수수료·광고료 '0' 주목...경기·서울 등 100여곳 벤치마킹

공공기관 최초로 출시한 군산시 공공 배달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배달 앱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에 나서면서 “공공 배달 앱”을 확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또 경기도·서울시·대전시 등 전국 지자체 100여곳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6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출시한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가 지난 2일까지 20여일 동안 받은 주문 건수는 모두 5344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1억2700여만원 어치다.

출시 후 첫 주말 이틀간 하루 평균 242건이었던 주문 건수는 보름 만에 355건으로 50%가량 증가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이용이 늘고 있다. 이 앱에 가입한 군산시민도 5138명에서 지난달 말 현재 1만8654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군산시가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는 모양새다.

“공공 배달 앱”이 거대자본의 ‘민간 배달 앱’과의 경쟁을 뚫고 안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은 민간 배달 앱과 달리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군산시는 이로 인해 업소당 월 평균 25만원 이상을 아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민간 배달 앱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음식값을 10% 할인받는 혜택을 누린다.

군산시는 ‘민간 배달 앱’이 사실상 독점을 이용해 수수료 인상에 나서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거세져 공공 배달 앱인 ‘배달의 명수’ 시장 점유율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내 대표적 ‘민간 배달 앱’이 지난 1일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오픈서비스 요금 체계’를 적용하자, 소상공인들은 ‘꼼수 가격 인상’이라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률제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최근 “중개 수수료로 배를 불리는 (민간) 배달 앱은 자영업자, 배달원, 소비자 모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며 “군산시의 공공 배달 앱을 자치단체들이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군산시에 ‘배달의 명수’ 상표의



강임준(가운데) 군산시장이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 이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 사용을 요청한 가운데 벤치마킹을 위해 도움을 청해 온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는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시·대전시·대구시 등이 전화를 걸어와 ‘배달의 명수’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소요 예산, 효과 등을 문의했다. 기초단체에서는 경북 경주시, 부산 남구, 충북 제천시 등이 군산시를 방문해 시스템을 살펴봤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운영계획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배달의 명수’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산시 관계자는 “가맹점 입점 신청과 소비자의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어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고창에 ‘스마트장어양식장’ 해수부 수산ICT 공모사업 선정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생산·관리

앞으로 장어 양식에도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돼 어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 스마트 뱀장어 양식 사업이 해양수산부 ‘2020년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총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되는 수산 ICT융합 지원 사업은 양식장 등 수산분야(생산·가공·유통 등)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수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장기적으로는 수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뱀장어 양식장 표준모델을 개발·확산해 수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고창군은 ‘고밀도 뱀장어 호지 ICT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명품 뱀장어를 양식한다는 계획이다. 뱀장어 양식에 중요한 수질(PH, 용존산소 등)을 자동화기기로 실시간 측정·제어·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명품 장어를 키워낸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고창군 심원면 도천리 양식어가가 참여한다. 양식어가들은 59개 수조, 약 50t 물량의 뱀장어를 양식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수질 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폐사율과 약화산소 비용을 줄이고, 사료효율 향상으로 최대 약 2억원 정도의 경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순창군이 아로니아를 첨가한 보디케어 제품을 개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순창지역 농산물로 만든 ‘아로니아 보디제품’ 개발

순창군이 지역에서 재배된 아로니아를 첨가한 보디케어 제품을 개발, 출시한다.

6일 순창군에 따르면 전북도 동부권특별회계 지원을 받아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가 보디케어 제품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보디워시, 보디로션, 샴푸(린스결음), 마스크 팩 등 총 4개 종류다.

최근 광주에 있는 화장품회사인 ㈜노아코스메틱과 순창 쌍암농공단지 내에 동지들 틈 ㈜비엔비에 기술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제품생산을 앞두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 2015년부터 전북도 동부권특별회계 지원을 받아 순창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소재 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한 경쟁력 있는 건강장수식품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남원시, 소외된 시민 없게... 상위 30%도 재난지원금 준다

시비로 지급...의회와 협의 마쳐 소득하위 70%는 정부가 지원

남원시가 정부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결정했다.

6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의 소득하위 70% 가구만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방식을 모든 시민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시의회와 협의를 마쳤다.

남원시는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30%도 자체 시비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똑같은 경제적 고통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한주 남원시장은 “시의회와 협의한 결과, 코로나19 극복에 모두가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지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한 명이라도 소외된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보편

적 복지에 큰 뜻을 두고, 지급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원시는 필요한 예산을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과 재난 목적 예비비 등을 통해 확보 지원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고, 예산안 편성 등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로 검토되고 있다. 지원 시기는 정부 지원에 맞춰 진행된다. 이와 별개로 남원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52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34억원과 노인일자리 8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3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과 사회보험 지원 등에 28억원, 지역사회 상품권 할인 보상 45억원 등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익산시가 최근 금강·부송매립장에 아적돼 있던 29만t 규모의 압축쓰레기 소각을 완료했다. 쓰레기를 소각한 익산 신재생자원센터 전경. (익산시 제공)

익산시, 29만t 야적 생활쓰레기 11년만에 소각 완료

신재생자원센터서 소각 처리

익산시가 금강·부송매립장에 쌓여 있던 29만t의 생활쓰레기를 모두 소각했다. 소각하는 데만 11년이 걸렸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야적쓰레기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처리하지 못해 생겼다.

익산시는 이 쓰레기를 압축 포장해 금강동 매립장에 18만5000t, 부송동 매립장에 10만5000t 등

총 29만t을 쌓아뒀다.

이어 2009년 1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신재생자원센터에서 매일 60t씩 이 쓰레기를 소각했고, 11년 만인 최근에 소각 작업이 완료됐다.

쓰레기가 쌓여 있던 매립장 부지는 내년에 약 50억원을 투입해 복토를 할 계획이다.

복토 후 어떻게 활용할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의사고!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Fire & Marine Insurance, SGI서울보증, AXA AXA 다이렉트 reinsurance / standards, AIG, The K 손해보험, NH손해보험